

디프·에콜로지와 한국의 환경교육

김동규(고려대학교)

1. 서론

21세기를 앞두고 인류사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전지구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는 그 이론과 실천적 관점에서 대략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지금까지 인류의 산업문명이 만들어 놓은 각종의 공해 물질들, 즉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관계되는 오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없앨 수 있을가에 대한 연구와 같은 환경공학적인 접근법이다.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같은 연구와 노력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것은 이미 야기된 공해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대증요법(對症療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번째로는, 환경문제에 관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공해 배출을 규제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고 각종의 국제 협약에 가입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법이다.

세번째는, 환경문제를 사회운동의 하나로 전제하고 각종의 사회단체 조직을 결성하여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사회 참여적인 환경활동은 주로

NGO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번째의 경우는, 환경문제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환경태도와 기술을 갖도록 하려는 환경교육학적인 방법이다.

끝으로, 환경문제를 철학 또는 윤리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의식 개혁을 근원적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디프·에콜로지에 근거한 환경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접근법이다.

이와같은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 본론은, 마지막의 디프·에콜로지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개관 설명한 다음, 이러한 접근법이 환경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디프·에콜로지의 기준에서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현행 한국의 중등학교 환경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하고 앞으로의 한국의 환경교육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설정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디프·에콜로지의 개념과 역사

디프·에콜로지(Deep-ecology)라는 개념은, 1972년 노르웨이의 철학자 네스(Neass, A.)가 <Inquiry>라는 잡지에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디프·에콜로지를, “근본 생태학 또는 본질적 생태학, 심층 생태학”이라고 번역하며 대칭 개념인 세로·에콜로지(Shallow ecology)를, “형식적 또는 표면적 생태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네스는 위의 논문에서 세로와 디프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로·에콜로지란, 주로 선진 국가들이 각종의 공해에 대한 투쟁이나 자원 부족에 대한 어필,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풍요로운 삶을 중심 과제로 삼는 환경주의적 운동임에 반하여 디프·에콜로지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생태철학적 가치관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네스는, 전통 기독교적 유일신을 부정하고 자연의 범신론적 관점에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을 비판한 17세기 네델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러한 네스의 근본주의 생태론은, 가까이는 1940년대 이른바 “토지윤리”로 대표되는 레오폴드(Leopold, A.)의 〈Sand county Almanac〉에서부터 1972년의〈Gaia as seen through the atmosphere〉로 유명한 러브록(Lovelock, J. E.)의 “지구유기체설”에 이르기까지, 멀리는 19세기 초 서구 사회의 산업혁명에 의한 환경파괴가 진행되면서 대두된 자연보호 사상과 동물애호 운동과 연결되고 있다.

한편, 디프·에콜로지의 내용은, 1836년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Emerson, R. W.)의 〈자연론〉이나 영국의 비평가이며 시인이었던 뮤어(Muir, E.)의 낭만주의적 문학과 초월주의 사상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영향은 동양의 불교철학과 도교(Taoism)에서 받았다고 보며, 그것은 선(禪)의 세계관에 심취했던 시인 스나이더(Snyder, G.)의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 그리고 메이시(Macy, J.)의 불교사상적 저서 〈세계는 연

인, 세계는 나〉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의 강령과 세계관

네스는 1972년 〈Inquiry〉에서 다음과 같이 7개의 디프·에콜로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Neass, 1972).

- ①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상이 아니고 전체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는다.
- ② 생명을 지닌 것은 모두가 생명 그 자체의 평등성을 갖는다.
- ③ 생물 다양성의 보장과 공생의 원칙
- ④ 어떠한 계급제도도 배격하는 평등주의 원칙
- ⑤ 자연 오염 및 자원 고갈에 대한 투쟁
- ⑥ 자연은 무질서의 복잡성(Complication)이 아니고 다양한 복잡성(Complexity)이다.
- ⑦ 지역적인 자율과 분권화의 원칙

네스가 제시한 7가지의 원칙은, 동물해방론으로 대표되는 싱거(Singer, P.)와 리건(Regan, T.)의 생물중심주의(Bio-centrism) 사상과 생명의 평등성과 다양성, 그리고 버그(Berg, P.)와 세일(Sale, K.)의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적 관점과 연결되고 있다.

한편, 철학자 셋슨즈(Sesscons, G.)와 디발(Devall, B.)은 다음의 8가지 항목을 디프·에콜로지의 강령(platform)으로 밝히고 있다.

- ① 지구상의 인류와 생물들은 자체의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 가치들은 인류의 생존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생명체의 다양성은 고유 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 ③ 인간은 자체 생존을 위한 최소 필요량 이외에는 생물의 다양성과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 ④ 인간 자신과 생물의 번영을 위해서는 인구조절이 필요하다.
- ⑤ 인간의 자연 파괴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 ⑥ 인간은 정치적인 의식 개혁으로,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기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 ⑦ 인간의 의식 개혁은 양에서 질로 바꾸어야 한다. 크고 많다는 것과 위대하다는 것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 ⑧ 이와 같은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은, 환경운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디발과 셋슨즈의 8개의 강령은, 생명의 고유성과 독립성, 생명의 다양성, 생명의 평등성, 생명의 위기성, 의식 개혁의 필요성, 슈마허(Schumacher, E. F.)의 이른바 “작은 것이 아

름답다”는 명제에 근거한, 삶의 질에 대한 자각성, 인간의 의무와 사명감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또한 디프·에콜로지스트의 중심 인물로 활약하고 있는 캐턴(Catton, W. R.)과 던랩(Dunlap, R.)은, 후기 산업사회에 살아갈 인류의 새로운 가치관으로는 생태주의적인 패러다임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3단계의 변화과정으로 <표 1>과 같이 구분, 설명하고 있다.

캐턴과 던랩의 3가지 자연관의 변화와 4가지의 가정 구분은, 첫째로,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적 세계관이다. 이것은 중세 이후의 서양 기독교적 문명사에서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린 화이트(Lyn White, Jr.)를 위시한 일련의 과정신학자들이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소위 신의 신탁관리인(stewardship)이란 개념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표 1> 인간의 자연관에 대한 가정과 변화사(Cotton & Dunlap, 1980)

구분	(1) 자연지배적 세계관	(2) 인간 특례주의 패러다임	(3) 생태주의적 패러다임
1.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한 가정	인간은 지구상의 여타의 모든 생물과는 다르며 이러한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문화적으로 여타의 생물과는 구별된다.	인간은 문화나 기술상의 특성을 가지지만, 지구상의 생태계와 연결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2. 사회적인 인간과 관계에 대한 가정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자이고 자기의 계획하에 무엇이든지 달성하는 능력이 있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기술)이 인간사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인간사는 단순히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그물은 가운데서의 원인파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은 필연성을 갖는다.
3. 인간 사회의 환경 조건에 대한 가정	세계는 무한하며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한다.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이 인간사의 결정적인 조건이며 생물·물리적인 환경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인간은 유한한 생물·물리적인 환경속에서 생활하며 그에 의하여 인간사는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4. 인간 사회에 대한 제약에 관한 가정	인간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다.	문화는 축적적이다. 따라서 기술은 무한히 계속된다. 어떠한 사회 문제도 결국은 해결된다.	인간의 지혜는 자연의 비밀을 규명하는 듯하나 자연법칙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표 1〉에서 두번째의 인간특례주의적 패러다임이란, 근세 이후의 계몽주의 사상과 서양의 과학적 합리주의 특히 데카르트와 뉴우튼으로 대표되는 기계주의적 자연관에서 인간의 이성(理性)을 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가치화시킨 세계관이라 하겠다. 그러나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은 앞으로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생태주의적 역사로 바뀌어야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력의 한계를 경고하면서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그물눈 안에서 인간사의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4. 근본주의 생태학의 발전과 운동

디프·에콜로지의 사상과 이론은 학문 세계의 여러 분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만들고 있다.

녹색정치론(Green-politics), 녹색경제학(Green-Economy), 생태주의철학(Eco-philosophy), 환경교육학(Environmental education), 생태주의 사회학(Eco-sociology)을 비롯하여 환경신학(Eco-theology), 환경윤리학(Environmental Ethics 또는 Bio-ethics), 환경문학(Eco-literature)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기존의 학문 분야에 “Green” 또는 “Eco-”, “Bio-”, “Environmental”이라는 접두어가 붙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근본주의 생태학의 사상과 이론은 하나의 사회 참여와 운동의 형태로서, 주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수 많은 비정부적 조직 기구(NGO)를 결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환경운동적 태업(Eco-tage)이나 집단적 시위(Guerilla theater), 연좌데모(sit-ins), 공해적 작업장의 방해(Monkey wrenching), 채식주의(Vegetarianism) 운동과 같은 투쟁방식을 취하였다. 생태주의적 여성해방론(Eco-feminism)자로 알려진 머천트(Merchant, M.)는, 이러한 디프·에

콜로지스트들의 사상과 활동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급진주의적 생태학(Radical ecology)”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디발과 셋슨즈의 환경천국론(Ecotopia)과도 같은 입장인 것이다.

디프·에콜로지의 이와 같은 발전과 사회 참여는 네스와 셋슨즈 그리고 디발로 대표되는 일련의 〈강령〉들에서, 자연관과 인간관 그리고 역사관을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그들의 환경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강조하는 환경윤리학은, 1960년대 말 환경 위기가 지구의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종래의 인간중심의 전통 윤리학에 새로운 연구 분야로 나타났던 것이다. 비른바허(Birnbacher, D.)는 이를 생태윤리학 또는 신 윤리학(New Ethics)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65년 경에 콜드웰(Caldwell, L. K.)과 풀러(Fuller)로 대표되는 『우주선 윤리』나 하딘(Hardin, G.)의 『구명정 윤리』와 『공유지의 비극』, 싱거(Singer, P.)의 『동물해방론』은 1950년대에 이미 나타난 『토지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은 1972년에 출간된 로마클럽의 유명한 〈성장의 한계〉에서도 환경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9년에는 미국에서 『환경윤리학』이라는 학술 잡지가 창간되게 되었다.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의 사회참여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녹색정치론과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이 개관된다.

디프·에콜로지의 사상을 기반으로 1972년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환경정치는 1980년에 서독에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하고 연방의회에까지 진출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캐나다, 미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도 1989년 12월에 〈대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우익도 좌익도 아니다. 다만 최전선에 있을 뿐이다”라

는 말로 전통적인 동서간의 이념 대결을 초월한 제3의 새로운 자연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언했던 것이다.

녹색당원들의 행동 원칙은, 생태주의적인 위치에서 유기농법을 강조하고 풀뿌리 환경운동의 단체 결성과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비폭력주의를 밖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발도르프 학교(Waldorf schools)와 자유국제대학(Free International University)과 같은 교육기관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찌기 엥겔스(Engels, F.)는 <자연변증법>에서, “우리들의 삶과 피 그리고 뇌도 모두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 한 가운데 있다”고 함으로써, 환경정치학자들로부터 많은 이론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다.

환경정치학에서는, 1989년 패어스(Pearce, D.)를 위시한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내 놓은(녹색경제학의 청사진(Blueprint for a Green-economy))을 시작으로 1992년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본 정신으로 하면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학과 기업에 새로운 경영방식과 생산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지닌 기술을 강조하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선언으로 유명한 슈마허(Schumacher, E. F.)나 “저 엔트로피 사회에서는 사람이 숲을 먹고 살지만 고 엔트로피 사회에서는 광산이 사람을 먹어 치우게 된다”는 표현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경고한 환경사가 내시(Nash, R.)의 이른바 『엔트로피』 이론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환경경제학의 중심 이론인 것이다.

디프·에콜로지적 사상이 철학과 결부된 것은 이미 니체(Nietzsche, W.)의 철학에서부터 발견된다.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대지에 충실하라”는 표현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2분법을 비판하고 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반자연적임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의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에서도 이

러한 사상적 자세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1970년대에 나타난 린·화이트(Lyn White, Jr.)의 <환경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패스모어(Passmore, J.)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저술 속에서도 우리들은 종래의 전통철학에 새로운 반항의 깃발을 들고 나오는 그들을 발견하게 된다.

린·화이트는, 1967년 『환경위기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에서, “우리가 지구생태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다. 우리가 새로운 종교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적인 철학과 종교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기 전에는 어떤 과학이나 기술로도 현재의 생태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글로써 인간의 새로운 자연관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주의와 사회학과의 결합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파슨즈(Parsons, T.)와 오코노(O'Connor, J.)가 중심이 돼, 주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자본론>과 <자연변증법>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Marx and Engels on Ecology>와 <Capitalism, Nature, Socialism> 등의 저작들이 그것들이다.

또한, 시몬느·보봐르(Beaivoir, S. de.)의 <제2의 성>과 프리단(Friedan, B.)의 <여성의 신화>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머천트(Merchant, C.)와 킹(King, Y.)은, 사회적인 여성운동을 생태주의와 결부시켜 이른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여성의 남성에 대한 관계는 자연의 문화에 대한 관계와 같은가?>라는 논문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생리학적 특징들—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때문에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자연과 대지의 바로 그것이다”라고 규정한 오르너(Ortner, S.)의 견해는 에코·페미니즘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환경신학과의 관계에서는, 폭스(Fox, M.)로

대표되는 “영성적 생태론(Spiritual ecology)”과 일련의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자들로부터 나타난다. 폭스는 환경문제를 고대사회의 신비주의 회복에서 찾았고 남미의 해방신학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콕(Cobb, J. B.)과 그리핀(Griffin, S.)은, 환경문제는 반기독교적 입장에서 서서 포스트모던적 가치관에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의 환경문학은, 일찌기 1850년대에 미국의 작가 소로우(Thoreau, H. D.)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과잉생산과 소비패턴을 비판하고 검소한 생활양식을 찬양하는 주제의 작품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Nature Writing”으로 표현되는 환경문학은 주로 수필이나 논픽션의 형식으로 나타났으나 시나 소설도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구전문학에 관심이 높았다.

아비(Aby, E.)의 〈사막의 낙원〉과 〈황야의 여행〉, 윌리엄스(Williams, T. T.)의 〈조류보호구역의 봄〉 등이 하나의 환경문학의 작품인 것이다. 오래된 대학의 러브(Love, G.) 교수는, “현대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의식을 바꾸어 위기에 처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태주의적 사상과 이론들이 모든 학문 영역과 결부되면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학교 교육과의 연결은 아직도 매우 미약하며 관계 논문이나 저작들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5.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의 환경교육관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환경문제를 보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결국 환경문제를 야기한 주범은 인간들 자신이고 이러한 인간들을 움직이는 것은 각자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반(反)자연적인 사고와 가치관이므로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즉 의식의 전환과 개혁이야말로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환경문제를 철학적, 윤리학적, 신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론만이 가장 중요하고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내세우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서구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인간관과 자연관을 부정하고 오히려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에서 보여주는 자연관을 평가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우주나 세계의 만물을 신화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인도의 베다 철학이나, 무위자연설(無爲自然說)의 중국의 도가사상,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설을 중시했던 한국의 전통사상, 범신론적 입장의 일본의 사메니즘(神道), 불살생(不殺生)을 계율로 삼고 있는 불교철학, 티벳과 몽골의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사메니즘적 자연관과 생활태도가 그러한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종래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문명관을 부정하고 자연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앞세우고 있다.

싱거의 ‘동물해방론’이나 리건의 ‘동물의 권리’, 스톤(Stone, C. D.)의 ‘자연 생존권’ 등은, 만물 평등주의와 생명주의를 주장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우위론적 가치관만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평등성을, 인간과 인간간의 불평등 관계만을 고발한 마르크시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과 만물의 생명체까지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세번째의 관점은, 생명과 생명 간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유기체와 무기체의 관계에까지 전개되는 새로운 자연관이다.

러브록(Lovelock)의 ‘지구 유기체설’이나 레오폴드(Leopold, A.)의 ‘토지윤리’ 등은, 생명이 없는 자연의 무(無)체계도 인간으로서의 일정한

윤리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살아있는 지구, 대지의 여신, 어머니로서의 자연을 인간들은 죽은 땅, 죽은 물로 인식하는데서 오늘날의 비극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레오폴드가 1944년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서, "Thinking like a mountain"이라는 표현이나, 네스가 자아실현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나는 열대우림이요 또한 나는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산천과 대화를 하고 있다"(Dunlap & Angela, 1992)는 말이나, 환경신학자 린·화이트를 위시한 일련의 생태윤리학자들이, "인간은 바위에 대하여 윤리적인 의무감이 있을까? 전통 유대교적 신앙의 자연 지배사상에 몰든 미국인들은 하나의 년센스이며 바보같은 질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대하는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러한 바보같은 질문에 진지해야만 될 가치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松野弘, 1993)고 한 것들은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의 지구유기체설의 일단을 나타낸 것이다.

끝으로,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주장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해관련 현상들을 교과내용에 나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공해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주입하는 것이나 환경친화적인 태도의 육성 및 공해방지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과 함께 환경철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대자연관을 바꾸게하는 의식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폭스는, <Toward a Transpersonal Ecology>로, 카프라는 <The Turning Point>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내세우는 환경문제 해결의 접근법과 기준에서 오늘날 한국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논의하여 본다.

6. 한국의 환경교육 실태와 평가

'환경교육'이라는 말이 한국의 학교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2년도 제4차 교육과정 개편에서였다. 교육부는 전국의 몇몇 학교에 '실험학교'를 설치 운영하였고 대학 수준에서도 환경 관련 전공 학과가 설치되었다.

그 뒤에 1987년의 제5차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8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환경교육의 강화가 전국의 각급 학교에 시달되면서 각 시·도·군·구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1개교씩 선정하여 504개교를 환경교육 중점지도 학교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환경교육이 교과 내용상으로 본격화된 것은 1995년도의 제6차 교육과정 개편 때부터인 것이다. 유치원의 수준에서는, <탐구생활>의 영역에서 "자연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사고와 탐구 능력의 배양"을 지도 목표로 설정하고 유아들의 수준에 알맞는 환경 관련 학습을 시키게 되었다.

교육부가 제정한 환경 관련 교과서는 별도로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사립의 유치원에서는 나름대로 교재를 개발, 지도하게 되었다.

대구시에 위치한 『연세 유치원』의 경우는 대구시 교육위원회로부터 환경교육 시범 유치원으로 지정받아 1994년에 <환경교육에 의한 기본생활 태도의 형성>이라는 실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1~2학년의 『바른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의 교과목에서 아동들의 학교와 가정 생활 환경에서 가능한 환경 관련 학습단원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3학년부서의 『사회』, 『자연』, 『도덕』과 같은 환경관련 교과목에서 단원의 수준으로 환경문제를 상당히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에서도 일정한 환경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된 것이 아니고 학제적 접근법으로 관련 교과목에서 단원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1988년도부터 몇 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포항시의 포항제철 서초등학교에서는 1992년부터 교육부 지정 시범 학교로서 거교적인 환경교육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다양

한 교재를 개발하여 이론과 실천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환경」이라는 독립 교과목을 교육부에서 제정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선택 과정으로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채택하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등학교의 수준에서는, 교양선택으로 「환경과학」이라는 교과목이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선택하는 학교가 적은 실정이다.

여기서는, 중학교의 「환경」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디프·에콜로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논의해 본다.

중학교의 「환경」과 목표로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아래, 「환경」 교과서에서는 각종의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학습내용으로 제시하면서, ‘살아있는 지구 가이아’라든지 ‘방아쇠 효과’, ‘후손에게서 빌린 환경’, ‘이자만 찾아 쓰는 삼림보호’ 등의 주제명으로 환경보전과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와 상징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강조하는 환경철학과 윤리학적인 개념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아’의 개념 이외에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환경과학」의 경우는, 환경교육의 목표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

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관을 형성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교육내용에는 환경주의적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해 현상에 대한 실태 중심의 설명일 뿐이고 디프·에콜로지적 관점과 기준에서 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거나 강조하는 학습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고등학교용의 「공통 사회(상)」에서는, ‘환경과 인류의 미래’라는 단원에서 환경문제를 역시 공해 문제를 현상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며, 「경제」에서도 ‘환경보호’라는 학습단위로 공해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는, 즉 네스가 분류한 이른바 세로·에콜로지적 접근법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한국 환경교육의 특징은 중등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환경문제를 하나의 고발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은 환경교육을 이와 같은 고발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지평에까지 끌어 올려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카프라(Capra, F.)가 개념한 ‘신사고의 대전환(The Turning Point)’이며 폭스(Fox, W.)의 ‘환경주의적 인격 개조(Toward a Transpersonal Ecology)’인 것이다.

7. 결론 및 논의

디프·에콜로지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상당한 거리

1) 포함제철 서초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큰 일』, 『엄마, 지구가 죽어간대요』, 『지구를 살리는 일, 우리가 하겠어요』와 같은 단행본과, 『소비절약 수범사례 실천지도』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의 생활화』라는 보고서와 함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깨끗한 생활』이라는 단행본 교과서를 출간하고 있다.

를 갖고 있다는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환경교육 방향은 적어도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공해교육과 같은 현상론적 접근법 보다는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이 강조하는 환경윤리학의 관점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학습지도 요령도 나와야 한다고 본다.

1978년, 애치아(Atchia, M.)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용으로 44개의 환경교육 중핵 개념(Key-word)을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하여 UNEP가 24개로 요약한 환경교육의 필수 개념에서도 디프·에콜로지스트들의 환경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²⁾

“환경교육은 정의적 영역의 특성들 즉,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갖추게 하는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과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남상준, 1995)는 주장도 심층 생태학의 입장에서 본 견해인 것이다.

한편, 환경교육은 환경문제 자체가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산적인 형식으로 관련된 교과목에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 교과목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현행과 같은 교양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화 해야만 한다.

두번째로는, 교과 목표와 내용 구성의 원칙도 세로·에콜로지적 접근 보다는 디프·에콜로지적인 관점에서 서술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한 두 가지의 예를 들면, 오늘날의 공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서구의 자연지배적 가치관과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탈피하는 길을 제시한다든지, 가령 학생들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like)일 뿐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것(love)은 아니라는 이치(를, 싱거의 <동물해방론>으로 설명하는

것들이다.

세번째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연수로 환경과목을 담당하는 현행의 환경 담당 교사 양성제를 폐지하고 환경문제에 깊은 지식과 사명감을 지닌 유자격 교사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정에서부터 교육시켜 유자격 전담 교사제를 적용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고 있으나 기존의 환경 관련 학과에 교직 과목을 부과하여 유자격 교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입학시험에서도 <환경학>을 필수 과목으로 설정하여 명실공히 본격적인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부는 교육시행령을 제정해야만 한다. 다행히, 지난 3월에 정부는 1992년 UN이 정한 『물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공동체 5대 원칙』과 『시정방침 7가지』를 발표하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선결돼야 할 조건들이 중요한 논의점으로 대두될 것이지만, 인류의 생존과 파멸에 직결되는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대하다고 본다면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개의 인용문에서 우리 인류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반성해야만 할 시점에서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열대우림 이투리(Ituri)강 유역에서, 인류 본래의 수렵 생활을 하고있는 피그미(Pigmy)는 귀중한 존재다. 에어컨을 능가하는 상쾌한 수풀의 바람, 미식가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300종 이상의 메뉴, 16비트에 이르는 다중 리듬과 다중 스테레오가 들려오는 음악은 현대문명이 추구하는 기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삶은 것도 모두가 함께 하는 평등과 경쟁이 없는 즐거운 사회는 선진국으로서 높게 달려있는 꽃과 같다. 그들이 선택한 자연의 풍요로움, 공동체의 마음가짐은 ‘미개’라는 개념을 깨고도 남는다.

2) 한두 가지의 예로, ‘야생 동식물에는 미적, 생물학적, 경제적 가치가 있음과 동시에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인간에 의한 자연 서식지의 파괴야말로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종의 멸종에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동규(1996). 『세계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pp.65~67)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전 인류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총 인구를 현재의 1% 이하로 줄여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현실적인 모델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발리(Bali) 섬이다. 자연과 뛰어나게 조화된 수전농경(水田農耕)으로 허용 인구 밀도를 높이면서도 피그미족들과 매우 비슷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극락과 같은 환경은, 인간의 손길이 안 미친 자연상태 그대로의 결과만은 아니다. 인공을 가하여 쌓아올린 작품이다. 서구의 근대화와는 별도로, 일본의 정원과 같은 또 하나의 인공환경의 극치라고 하겠다. 지구의 장래에 있어서 무한한 제시이기도 하다.”(大橋力, 1995)

풍심 (風心)

인류 문명의 원시적인 발달은 극한으로 달리고 있다.

이대로 발전하여 팽창하고 붕괴할 것인가?

반전하여 구심적으로 수축할 것인가?

멸망인가, 부활인가 기로에 선 인간

발 밑의 대지는 무너지기 시작하여 하늘도 검어지고 있다.

.....
.....
세도(瀬戶)의 바다는 석유로 오염되고

양식(養殖)의 방어는 전멸했다.

어부가 격노하지만,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석유제품으로 만들어졌고

어선이 기름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어획량이 급증하게 됐지만, 점점 물고기는 급감해졌던 것이다.

양식 방어가 석유로 죽어갔던 것이다.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적조가 발생하여, 물고기도 김도 따라 죽었고 바다도 죽어갔던 것이다.”(福岡正信, 1992)

이제 우리는 독일의 생태사회주의자 바로(Bahro, R.)의 “.....계급투쟁 보다는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우선이다”(구승희, 1995)라는 선언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정신의

대대적인 개종운동을 전개해야만 하는 과업을 안게 되었다.

“자연은 인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하다”(김동규, 1995)는 자연의 섭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金東圭(1995). 21C 環境主義の展望と環境教育の基本原理. 東京. p.54.
- 교육부(1992). 유치원 교육과정. p.34
-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p.194
- 구승희(1995). 에코필로소피. 새길. p.140.
- 남상준(1995). 환경교육론. 대학사. p.73
- 大橋力(1995). 『朝日新聞』 1995년 4월 10일 칼럼, 東京
- 대한교과서(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I). p. 542
- 福岡正信(1992). 自然農法 『わら一本の革命』. 春秋社. 東京.
- 松野弘(譯)(1993). 自然의權利, TBSブリタニカ. 東京. p.133
- Catton, W. R. and Dunlap, R.(1980). “A New Ecological Paradigm for Post-Exuberant Soci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4, No.1, p.34
- Devall, Band and Sessions, G.(1985), *Deep Ecology*. (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 Dunlap Reley E. and Angela G. Mertig (1992). *American Environmentalism*. Taylor & Francis, Philadelphia. p.52
- Neass, A. (1972),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No.16, pp.95~100